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경도 치매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과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주형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Effects of Occupation based Reminiscence Therapy on Early Dementia Patient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Ju-Hyung Park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경도 치매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과 우울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경도 치매 노인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총 8주 동안 주 1회, 각 회기 당 40분의 작업 중심 회상치료를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대상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서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MoCA-K), 우울정도 측정을 위해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검사(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SGDS-K), 그리고 대상자들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치매노인 대상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GQOL-D)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작업 중심 회상치료 실시 전에 비하여 경도 치매 노인 환자의 MoCA-K 점수는 중재 전 14.62 ± 5.07 에서 중재 후 16.88 ± 4.55 로, SGDS-K 점수는 중재 전 7.28 ± 4.28 에서 중재 후 6.10 ± 4.09 로, 마지막으로 GQOL-D 점수는 중재 전 26.05 ± 5.45 에서 중재 후 28.55 ± 5.74 로 변화하여 측정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경도 치매 노인 환자들의 인지기능, 우울 그리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upation based Reminiscence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Thirty-one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underwent Occupation based Reminiscence therapy for 40 minutes per session, once weekly, for 8 weeks.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 (MoCA-K),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SGDS-K), and 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 (GQOL-D) were used to measur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level,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Mean MoCA-K score increased from 14.62 ± 5.07 before intervention to 16.88 ± 4.55 after intervention; mean SGDS-K score decreased from 7.28 ± 4.28 to 6.10 ± 4.09 , and mean GQOL-D score increased from 26.05 ± 5.45 to 28.55 ± 5.74 . Furthermore, these positive change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cluded Occupation based Reminiscence therapy may positively affect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dementia

Keywords : Dementia, Cognition, Quality of life, Occupation based Reminiscence Therapy, Depression

1. 서론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2016년 기준 총 인구의 13.3%에 달하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로인한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감소된 일상

이 논문은 2018학년도에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Hyung Park(Cheongju Univ.)

Tel: +82-43-229-7864 email: parkjh@cju.ac.kr

Received September 19,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Revised (1st November 9, 2018, 2nd November 12,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역할 상실, 고독 및 소외, 그리고 의료비 급증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2], 이러한 노인성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치매를 들 수 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기억력 손상을 시작으로 인지 손상, 문제 행동, 일상생활의 제한, 신체기능의 소실로 진행되어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3]. 특히, 치매 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인 뇌기능의 퇴화로 인해 인지적 장애가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된다[4]. 또한, 치매 노인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동반되는 문제들 중 하나로써 우울을 들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졌을 경우 그로인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우울 증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이 언급되어졌다[5].

이러한 치매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음악치료, 의사소통기술훈련, 인지자극훈련, 행동치료, 스노즐렌, 회상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6, 7]. 이 중 회상치료는 잊혀져있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 감정, 자기개념, 의식적 기억을 불러일으켜 다시 통합시키는 치료적 접근방법으로서[8], 과거 사진이나 노래, 영상, 물건 등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시 느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어진다[9]. 그를 통해 치매 노인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타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서 사회적인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9, 10].

그러나 이러한 회상치료 접근방법은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되어져 있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치매 노인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1]. 그에 따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실질적인 신체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상치료를 적용하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 접근방법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11, 12].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삶, 문화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으로 과거에 수행하였던 작업을 이용하여서 회상치료를 접목하게 되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는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의사소통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치료적 방법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13]. 즉, 의사소통과 상호작용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 환자에게는 기존의 언어적인 회상치료보다 작업에 기반을 두고 그 특성을 이용하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14]. 예를 들어, 멧돌 사진만을 함께 감상하며 회상훈련을 시행하는 중재방법에 비해서, 실제 멧돌이 대상자들에게 제시되어지면 모두가 그것을 시연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성원들 앞에서 멧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도구 사용방법을 언어적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능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게 된다. 그로인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15].

하지만, 기존 회상치료 접근에 비해 작업 중심 회상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도 치매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중심 회상치료를 적용하고 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의 3곳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만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 환자들 중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동의한 총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자, 임상 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에서 0.5 또는 1인 경도 치매 인자, 약물의 복용이 연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실어증 또는 시력, 청력에 제한이 없는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였다(Table 1).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9.2를 이용하였으며, 효과 크기는 .3, 검정력 .8,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최종 27명이 산출되어 탈락률은 약 20%를 고려하여 총 33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별 하였다. 연구 과정 중 퇴원 및 컨디션 악화로 인한 탈락자를 제외한 31명의 치매 노인 환자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subject	percentage
gender	male	14	45.16
	female	17	54.83
age	65~74	20	64.51
	75~84	11	35.48
education (year)	<1	14	45.16
	1-6	15	48.38
	7-12	2	6.45
CDR ¹⁾	0.5	13	45.16
	1	18	58.06

1)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2.2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31명의 대상자들의 작업 중심 회상치료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사후조사로 대상자들의 인지 기능 측정을 위해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MoCA-K)를 사용하였고, 우울정도를 위해서는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검사(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SGDS-K)를 그리고 삶의 질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치매노인 대상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GQOL-D)가 이용되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인 작업 중심 회상치료는 총 8주간 주1회 회기별 40분간 시행하였다. 각각의 평가와 훈련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치료사 4명에 의해 시행되어졌다.

2.3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작업 중심 회상치료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되어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는데 [11, 15, 17], 세부적인 진행방법은 실제 활동에서 사용되어질 도구를 보여주고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각 개별한 사람 씩 자신만의 시범을 보여 사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도구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저마다의 과거 이야기들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였다. 마무리 과정에서는 진행자가 개입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작업 중심 회상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진행자는 각각의 작업 참여자가 자신만의 도구 사용 및 작업 시범을 보이는 데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체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세부 프로그램은 딱지 접기, 송편 만들기, 연 만들기, 부채 만들기, 기저귀와 포대기하기, 주먹밥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과일 청 만들기 등의 총 8개 활동으로 참여자들의 과거 경험에 기반한 활동들로 선택 및 활용하였다. 총 8주에 걸친 중재기간 동안 한 주 하나의 활동을 선정하여 모든 대상자가 함께 수행하였으며, 각 주마다의 주제는 대상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 모두의 공통된 어린 시절 또는 청 장년기 시절 수행하였던 놀이나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MoCA-K)

Nasreddine 등에 의해 개발된 MoCA는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고자 고안된 평가도구로서[1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중재 전후의 인지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번역 및 수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거쳐 보완된 MoCA-K를 사용하였다[18]. 전체 평가는 시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회상력, 지남력의 항목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경도인지장애 선별 기준은 평가 점수 23점 이상은 정상, 22점 이하는 경도인지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최고점수는 30점이며, MoCA-K의 Cronbach's α =.81~.84이다[19].

2.4.2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검사(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SGDS-K)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인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SGDS-K를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20]. SGDS-K는 1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도구의 Cronbach's α = .88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다[20].

2.4.3 치매노인 대상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GQOL-D)

대상자들의 삶의 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GQOL-D가 본 연구에서 이용되어졌는데,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을 측정하는 13개 문항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생활을 측정하는 각 1개의 문항을 포함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21].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 .87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21].

2.5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PASW 18.0과 Excel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고, 중재 전·후의 인지 기능과 우울정도 그리고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중재 전후 결과 값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재 전후 인지기능 및 우울 비교

연구 대상자의 중재 전후 인지기능과 우울은 [Table 2]과 같다. 인지 기능의 경우 작업 중심 회상훈련 시행 전 총점 평균 점수가 14.62±5.07점, 시행 후 16.88±4.55점으로 분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p < .05), 우울의 경우에서도 시행 전 총점 평균 점수가 7.28±4.28점, 시행 후 6.10±4.0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한 우울의 감소를 보였다(p < .05)(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MoCA-K and SGDS-K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Pre-intervention M±SD	Post-intervention M±SD	t	p
MoCA-K ¹⁾	14.62±5.07	16.88±4.55	-3.01	.02*
SGDS-K ²⁾	7.28±4.28	6.10±4.09	3.38	.04*

1) MoCA-K :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 2) SGDS-K :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p<0.05

3.2 중재 전후 삶의 질 비교

연구 대상자의 중재 전후 삶의 질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작업 중심 회상훈련 시행 전 총점의 평균 점수가 26.05±5.45점, 시행 후 28.55±5.74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결과를 보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총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p < .05)(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GQOL-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GQOL-D ¹⁾	Pre-intervention M±SD	Post-intervention M±SD	t	p
Physical health	6.35±1.45	7.45±2.20	-3.08	.02*
Psychological health	4.12±1.81	5.59±2.17	-3.38	.00*
Independent level	3.48±1.57	3.84±1.85	-1.82	.09
Social relationship	5.50±2.07	6.89±1.99	-1.54	.02*
Environment / Religion	4.16±1.62	4.30±1.65	-1.39	.84
Overall health	1.65±0.85	1.65±0.85	-	-
Overall life	1.65±0.85	1.85±0.90	-1.74	.35
Total*	26.05±5.45	28.55±5.74	-6.56	.01

1) GQOL-D : 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 *p<0.05

4.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 치매 노인 환자들에게 작업 중심 회상훈련이 적용하였을 때 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진, 음식, 음악, 물건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회상치료를 통해서 사회적 행동이나 우울의 감소, 의사소통의 향상 등을 보고한 연구들이 회상훈련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10, 22, 23].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였었는데 사진이나 물건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참여자들 간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형태의 회상훈련이 주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11].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회상훈련의 적용은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에서는 그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치료적 집단의 경우, 작업에 기반을 둔 집단이 언어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집단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사회적 교류를 발달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삶, 문화, 가치를 정의하기 때문에[13], 집단 내에서 함께 수행되어지는 작업은 일정한 치료적 목적을 가진 집단 내에서 강력한 치료적 매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빈번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회상훈련을 적용할 경우에는 언어적 활동을 주로 유도하는 회상훈련보다는 실제적인 작업 중심의 회상치료가 더욱 타당한 접근법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 요양원의 치매노인들의 행동을 관찰 하였을 때 그들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활동들을 수행할 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이 저하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즉, 치매 노인 환자들은 자신이 능숙한 활동 또는 작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26]. 이는 프로그램 내에 가미할 작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경험과 무관하여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활동의 경우 회상치료의 측면에서는 지양해야 할 작업이며 대상자의 경험에 부합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회상치료의 활동으로서 적합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치매 노인 환자 대상 작업 중심 회상치료에 포함될 작업 활동의 측면에서도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들이 예전에 경험해 봤던 친숙한 작업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증상이 호발하는 질환인 치매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기존 언어적 활동 중심의 회상치료보다는 작업 중심의 회상치료를 수행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세부 작업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그들이 친숙하고 능숙할 만한 그로 인해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행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이 작업 중심 회상훈련 시행 전 총점 평균 점수 14.62 ± 5.07 점에서, 시행 후 16.88 ± 4.55 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p < .05$),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치매환자의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27]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는 언어적인 기억력이 먼저 손상되고 장기기억에서의 절차기억이 이후에 손상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8, 29], 본 연구의 인지기능의 향상 결과는 대상자 모두의 공통된 어린 시절 또는 청 장년기 시절 수행하였던 놀이나 활동들로 구성된 작업 중심 회상치료를 통해 대상자들이 과거의 친숙한 활동들을 접하게 됨으로서 참여도가 증가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상자들의 장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절차기억력을 활용하여 뇌가 보다 활성화되고 행동적으로도 직접적인 참여가 촉진되어 인지기능 향상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10, 17].

본 연구에서는 작업 중심 회상활동의 결과로 대상자의 우울도 시행 전 총점 평균 점수가 7.28 ± 4.28 점, 시행 후 6.10 ± 4.09 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p < .05$), 삶의 질 측면에서도 작업 중심 회상훈련 시행 전 총점의 평균 점수가 26.05 ± 5.45 점, 시행 후 28.55 ± 5.74 점으로 나타나 유의미하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세부항목으로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총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환자의 장기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익숙한 사건 및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활동에 대한 절차 기억력을 활용하여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기억을 공유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증가시켜 서로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9, 16, 30, 31]. 또한 질환의 특성 상 점진적인 기능의 감소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실패 없는 활동 수행과 그를 통한 성취감, 자신감의 획득으로 인한 결과로 대상자들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의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임상환경에서의 제한으로 인해 전체 대상군 모집의 한계로 인한 기존의 전통적인 회상훈련 적용군과 작업 중심 회상 훈련군과의 비교를 수

행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사전-사후 설계로서 작업 중심 회상 훈련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작업 중심 회상훈련이 경도 치매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과 우울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작업 중심 회상훈련의 결과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은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기준 중재 전 14.62 ± 5.07 에서 중재 후 16.88 ± 4.55 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 < .05$). 또한, 우울 측면에서는 단축형 한국판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측정 결과 중재 전 7.28 ± 4.281 에서 중재 후 6.10 ± 4.09 로 감소되어 유의미한 우울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05$).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경우에서도 치매노인 대상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GQOL-D) 기준 중재 전 26.05 ± 5.45 에서 중재 후 28.55 ± 5.74 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p < .05$).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 중심 회상훈련이 경도 치매 노인 환자들의 인지기능과 우울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작업 중심 회상치료가 경도 치매 노인 환자들의 인지건강 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울 및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및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회상치료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작업 중심 회상훈련이 국내 임상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7). Elderly Statistics 2017.
- [2] U. J. Park, "Trends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Patient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202-209,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02>
- [3] H. M. Pendleton, & W. Schultz-Krohn, Pedretti 's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s for physical dysfunction. Elsevier Health Sciences. 2013
- [4] R. B. Flannery, "Treating learned helplessness in the elderly dementia patient: preliminary inquiry", Am J Alzheimers Dis Other Demen, Vol.17, No.6, pp.345-349, 2002.
DOI: <https://doi.org/10.1177/153331750201700605>
- [5] D. B. Marin, M. C. Sewell, & A. Schlechter, "Accurate and early diagnosis in the primary care setting", Geriatrics, Vol.57, No.2, pp.36-40, 2002.
- [6] E. Grasel, J. Wiltfang, & J. Kornhuber, "Non-drug therapies for dementia: An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gard to proof of effectiveness",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Vol.15, No.3, pp.115-125, 2003.
DOI: <https://doi.org/10.1159/000068477>
- [7] E. Vasse, M. Vernooij, A. Spijker, M. O. Rikkert, & R. Koopmans,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people with dementia in residential and nursing home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2, No.2, pp.189-200, 2010.
DOI: <https://doi.org/10.1017/S1041610209990615>
- [8] R. N. Butler,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Vol.26, pp.65-76, 1963.
- [9] B. Woods, A. Spector, C. Jones, M. Orrell, & S. Davies, "Reminiscence therapy for dementia",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Vol.18, No.2, pp.1-34, 2005.
DOI: <https://doi.org/10.1002/14651858.CD001120>
- [10] S. L. Huang, C. M. Li, C. Y. Yang, & J. J. Chen, "Application of reminiscence treatment on older people with dementia: A case study in Pingtung",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17, No.2, pp.112-119, 2009.
DOI: <https://doi.org/10.1097/JNR.0b013e3181a53f1b>
- [11] K. M. Lim, J. H. Park, "The Effects of Occupational Reminiscence Therapy Applied to the Elderly With Dementia: A Pilot Stud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1, No. 2, pp1-12, 2013.
- [12] H. S. Kim, M. Y. Jung, "The effects of occupational and commutative reminiscence therapy applied to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Vol. 5, No. 2, pp17-28, 2011.
- [13] A. Bullock, & K. Bannigan, "Effectiveness of activity-based group work in community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65, No.3, pp.257-266, 2011.
DOI: <https://doi.org/10.5014/ajot.2011.001305>
- [14] K. Rebeiro, "Occupation-as-means to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call for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65, No.1, pp.12-19, 1998.
DOI: <https://doi.org/10.1177/000841749806500102>

- [15] H. Yamaguchi, Y. Maki, & T. Yamagami, "Overview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dementia and principles of brain-activating rehabilitation", *Psychogeriatrics*, Vol.10, No.4, pp.206-213,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79-8301.2010.00323.x>
- [16] C. Travers, D. Brooks, S. Hines, M. O'Reilly, M. McMaster, & W. He, et al., "Effectiveness of meaningful occupation interventions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in residential aged care: a systematic review", *JBISRIR*, Vol.14, No.12, pp.163-225, 2016.
DOI: <https://doi.org/10.11124/JBISRIR-2016-003230>
- [17] T. Yamagami, M. Oosawa, S. Ito, & H. Yamaguchi, "Effect of activity reminiscence therapy as brain-activating rehabilitation for elderly people with and without dementia", *Psychogeriatrics*, Vol.7, No.2, pp.69-75, 2007.
DOI: <https://doi.org/10.1111/j.1479-8301.2007.00189.x>
- [18] Z. S. Nasreddine, N. A. Phillips, V. Bedirian, S. Charbonneau, V. Whitehead, & I. Collin, et al.,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a brief screening tool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53, No.4, pp.695-699, 2005.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5.53221.x>
- [19] J. Y. Lee, D. W. Lee, S. J. Cho, D. L. Na, H. J. Jeon, & S. K. Kim, et al., "Brief screening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elderly outpatient clinic: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and Neurology*, Vol.21, No.2, pp.104-110, 2008.
DOI: <https://doi.org/10.1177/0891988708316855>
- [20] I. K. Jung, D. I. Kwak, S. H. Joe, & H. S. Lee, "A study of standardization of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GDS)",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Vol.1, No.1, pp. 61-72, 1997.
- [21] H. S. Lee, & J. H. Kim, "The Standardization of the 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Dementia(GQOL-D)",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Vol.8, No.3, pp.151-164, 2004.
- [22] J. J. Wang, M. Yen, & W. C. OuYang, "Group reminiscence intervention in Taiwanese elders with dementia",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49, No.2, pp.227-232, 2009.
DOI: <https://doi.org/10.1016/j.archger.2008.08.007>
- [23] E. Finnema, R. M. Drees, M. Ribbe, & W. Tilburg, "The effects of emotion-oriented approaches in the care for persons suffering from dement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5, No.2, pp.141-161, 2000.
DOI: [https://doi.org/10.1002/\(SICI\)1099-1166\(200002\)15:2<141::AID-GPS92>3.0.CO;2-5](https://doi.org/10.1002/(SICI)1099-1166(200002)15:2<141::AID-GPS92>3.0.CO;2-5)
- [24] B. K. Haight, F. Gibson, & Y. Michel, "The Northern Ireland life review/life storybook project for people with dementia", *Alzheimer's & Dementia*, Vol.2, No.1, pp.56-58, 2006.
DOI : <https://doi.org/10.1016/j.jalz.2005.12.003>
- [25] J. C. C. Chung, "Activity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people with dementia in long-term-care settings",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Vol.24, No.1, pp.22-31, 2004.
DOI: <https://doi.org/10.1177/153944920402400104>
- [26] A. Phinney, H., Chaudhury, & D. L. O'connor, "Doing as much as I can do: The meaning of activity for people with dementia", *Aging and Mental Health*, Vol.11, No.4, pp.384-393, 2007.
DOI: <https://doi.org/10.1080/13607860601086470>
- [27] S. Y. Kim, Y. S. Kim, "Effects of Occupational Reminiscence Therapy Applied on Depression, Memory and Behavioral Problems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Vol.8, No.2, pp.1-10, 2014.
- [28] L. P. De Vreese, M. Neri, M. Fioravanti, L. Belloi, & O. Zanetti, "Memory rehabilitation in Alzheimer's disease: a review of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6, No.8, pp.794-809, 2001.
DOI: <https://doi.org/10.1002/gps.428>
- [29] J. Y. C. Chan, J. S. W. Kwong, A. Wong, T. C. Y. Kwok, & K. K. F. Tsoi, "Comparison of Computerized and Paper-and-Pencil Memory Tests in Detection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Diagnostic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19, No.9, pp.748-756, 2018.
DOI: <https://doi.org/10.1016/j.jamda.2018.05.010>
- [30] H. Rita Chang, H. W. Chien, "Effectiveness of group reminiscence therapy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in a day care centers in Taiwan", *Dementia*, Vol.17, No.7, pp.924-935, 2018.
DOI: <https://doi.org/10.1177/1471301217725185>
- [31] G. Charlesworth, K. Burnell, N. Crellin, Z. Hoare, J. Hoe, & M. Knapp, et al., "Peer support and reminiscence therapy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carers: a factorial pragmatic randomised trial",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Vol.87, No.11, pp.1218-1228, 2016.
DOI: <https://doi.org/10.1136/jnnp-2016-313736>

박 주 형(Ju-Hyung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석사)
- 2016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학과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신경계작업치료, 지역사회작업치료